

부정훈련은 마침표. 올바른 직업훈련은 이음표~

QR코드를 찍으시면
다양한 부정훈련 사례를
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
※ 이 내용은 부정훈련신고 및 훈련생 수강평을 바탕으로 구성하였습니다.

[주요 부정훈련 사례] 훈련 운영



훈련내용이 HRD-Net에 안내된 내용과 다른 경우

- 부득이한 사유로 실시신고 된 사항(훈련시간표, 교재, 강사, 장소, 장비 등)을 변경하여 훈련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, 반드시 변경신고 후 진행해야 함에도, 변경신고를 누락하고 훈련을 실시한 사례
* 단, 훈련시간, 훈련방법, 훈련비는 사유와 상관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.
-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훈련과정에 편성된 능력단위별 NCS 기준을 확인하지 않은 채 훈련교·강사의 경험에만 의존하여 특정 능력단위 만으로 훈련을 진행한 사례
- 훈련과정 홍보 시 안내된 내용과 실제 훈련에서 내용을 다르게 진행한 사례



훈련교재를 배부받지 않고 훈련을 진행한 경우

- 심사만을 위해 실제 활용하지 않을 교재를 편성하여 비용절약을 목적으로 훈련생에게 교재를 제공하지 않고(또는 일부만 제공), 부실하게 훈련을 운영한 사례



훈련생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평가지에 서명하도록 요청받은 경우 (평가 전 답안지 제공, 내가 수행하지 않은 작품에 서명 요구 등)

- 교과목별 훈련생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, 평가를 실시한 것처럼 훈련생에게 서명만 하게 하거나 평가 전 답안지를 제공하는 등 허위자료를 만들어 훈련이수자 평가를 받은 사례



계획된 훈련시간을 채우지 않고 단축하여 운영한 경우

- 훈련시간 중 일부를 점심시간, 훈련생 상담 등 훈련과 무관하게 활용되어 사실상 인정받은 총 훈련시간을 줄여 운영한 사례
- 인정받은 훈련시간(사직시간, 종료시간, 쉬는시간 등)을 임의로 단축하여 운영한 사례



훈련교사가 수업 중(자주 또는 오랫동안) 자리를 비워 수업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

- 훈련교·강사가 훈련시간 중에 훈련생들만 실습을 진행하게 하고 강의실을 벗어나 다른 업무를 수행하여, 훈련생이 질문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없게 하는 등 훈련생 관리를 하지 않은 사례



훈련장비가 없어(고장 등) 오랫동안 실습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

- 훈련장비의 유지·보수를 소홀히하여 고장이 발생했거나 인정받은 장비 수량보다 부족하게 활용 (또는 인정받지 않은 다른 장비를 사용)하여 훈련생이 실습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

훈련 관리



다른 사람이 대신 출석체크를 해주는 경우

- 훈련교사가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훈련생의 편의(지각, 조퇴, 외출 등)를 봐주는 등 훈련기관이 훈련생 출결을 소홀하게 관리한 사례
- 훈련을 수강하지 않았음(지각, 결석 등)에도 그 훈련생을 대신하여 QR코드 및 출석카드를 찍어 주는 등 출석체크를 해준 사례



취업확인서를 허위로 요청받은 경우

- 수료생의 취업확인서(재직증명서, 근로계약서 등)를 허위로 꾸며 제출하고 허위로 취업보고한 사례



HRD-Net 수강평 입력을 위해 ID와 패스워드를 알려달라고 요청받은 경우

- 훈련기관이 훈련생의 HRD-Net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수집하여 수강만족도와 수강후기를 조작한 사례



온라인 신고센터 접속



부정훈련 팩트체크



신고서 작성



후속 행정조치



신고결과 확인

부정훈련 신고, 올바른 참견입니다

신고 포상금 최대 3,000만원 |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
직업능력심사평가원 www.ksqa.or.kr(신고센터) | 한국산업인력공단 www.hrdkorea.or.kr(부정비리신고)



※ 본 포스터의 슬로건은 2021년 올바른 훈련문화 만들기 슬로건 공모전 수상작(최우수상, 남상철 님)을 활용하여 2022년에 제작·배포했습니다.